

## 이번 호에는...

### 2면 군관련 소식

2군과 함께한 스트라이커 부대  
한미 활주로 복구 신기술 교류

### 3면 군관련 소식

선행에 앞장선 201통신중대  
2사단 항공1대대 아쉬운 작별인사  
한마디

### 4, 5면 부대 탐방

여단지원대대본부중대



###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 7면 카투사 기고문

G메일 그리고 구글

### 8면 안녕하세요

현영



###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6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한미연합전시증원 / 독수리 훈련 실시



제공사진: 카투사 신문 김도호, 최희진, 심영식, Spc. Daniel Love/ Eighth U.S. Army PAO

지난 3월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RSO&I)을 실시 하였다. 이 훈련은 1994년 이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최근 2002년에는 훈련의 효율성의 재고를 위해서 독수리 훈련(Foal Eagle)과 함께 수행되고 있다.

RSO&I는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의 약자로서 이는 훈련의 전반을 구성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4가지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의 1차적 목적은 적의 도발에 대한 방어와 그에 수반되는 적 세력의 괴멸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우선적으로 동원되는 병력과 장비의 증원 그리고 추가되는 물자들을 수용하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수용된 모든 것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로이 편성하여 적 제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병력과 장비 그리고 물자들을 실제로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고 배치하는 것이며 끝으로 네번째 단계는 앞서 언급한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편성과 배치가 마무리된 증원부대의 작전 통제권을 지휘관에게 전환시키는 단계이다.

금년 전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및 한국군과 해외에서 증원된

### - 바로잡습니다 -

▲지난 2월 두 번째 30권 4호 '68헌병대대 한국으로 귀환' 기사와 관련, '68헌병대대'를 '68인의 특수 임무 전투단'으로, '캠프 험프리의 728헌병대대와 249헌병중대, 94헌병대대'를 '전국 각지의 728헌병대대원과 94헌병대대의 249헌병중대'로 바로잡습니다.

▲같은 호 '한미 동맹 강화 위한 참모회의 개최' 기사에서 '조셉 마르츠 중장'을 '조셉 마르츠 준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카투사 신문 김도호

3월 31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나이트필드에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이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김장수 전임 부사령관의 뒤를 이은 이희원 대장은 육군본부 항공작전사령관직을 거쳐 신임 부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이날 취임사에서 이대장은 한미 양국이 '같이 갑시다'의 구호처럼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확고히 다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다수의 미군 또한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하였을 경우 한미연합군이 어떤 식으로 적의 공격에 대하여 대응을 할 것 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숙지할 기회를 가졌다.

훈련에는 카투사를 비롯한 한국군과 미군 외에 예비병, 주방위군 등을 포함한 비정규 군인들도 참가하였다. 그들은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과 을지포커스렌즈에 참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연 2회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반도 수호의 초석이 되는 이 훈련들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 근무단 역시 이번 훈련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미군을 여러 측면에서 돕고 있는데 각종 보급품 및 탄알 수송, 야전에서 진지 구축, 주한미군의 기지 방어 업무 등 전반적인 비전투 업무를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

하지는 않지만 전쟁 발발시 한반도에서 미군들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해결해 주어 성공적인 훈련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 달 간의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평가, 향상 시킬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철저히 훈련을 하였다"고 미 8군 작전참모부의 다니엘 세로키 원사는 말했다. 또 그는 "이번에 행한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말하여 이번 훈련을 통해 한층 강력해진 한미연합방위력을 강조했다.

일병 심영식

## 한미 활주로 복구 신기술 교류



제공사진

활주로를 복구하는 한미 장병들.

공군 17전투비행단과 미 해병대 1사단은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 기간 중 17전투비행단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을 가졌다.

미 해병대 1사단은 훈련 당시 한미 연합전시증원 연습 / FE(Foal Eagle) 연습의 일환으로 활주로 복구 기술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날 훈련에서 미 해병대 측은 미군이 운용 중인 접개식 유리섬유 매트 복구 공법(Folded Fiberglass Mat : FFM) 기술을 선보이고 한국 공군은 최소 운영 활주로 프로그램(피폭 시 최소한의 사용 가능한 활주로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활주로 복구를 위한 신기술을 교류했다. FFM 공법은 활주로의 피폭된 지점을 정리하고 그 위에 유리섬유 매트를 덮어 비행기의 이착륙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시

공이 간편해 내년부터 우리 공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훈련은 상황 발령을 시작으로 우리 공군이 최소 운영 활주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이어 미 해병대의 FFM 포설 시범 후 한국 공군의 FFM 포설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17전투비행단을 비롯한 지휘관 참모와 미 해병대 지휘관은 물론 공군 각급 부대 피해 복구 관계 요원이 참가해 훈련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17전비 시설대대장 김종범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FFM 공법을 습득하고 한/미 양군 간의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며 "유사시 한미 연합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 간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을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일보 제공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 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인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 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 8군 부대내 C-2330B 이며 전화번호는 723-3134/4681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채신정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 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do.ho.kim@usfk.korea.army.mil이다.

미 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펠  
 한국군지월단장  
 대령 김덕근  
 미 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월단 정훈과장  
 대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김도호  
 기자  
 일병 최의진  
 일병 심영식  
 일병 이정우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Kim, Do-ho  
 Staff Writers  
 Pfc. Choi, Eui-jin  
 Pfc. Shim, Yung-sik  
 Pfc. Lee, Jung-woo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3134/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do.ho.kim@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3134

E-mail: do.ho.kim@usfk.korea.army.mil

## 2군과 함께 하는 스트라이커 부대

호송에 관계된 전반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3 스트라이커 여단의 병사들은 한국 육군 제 2군과 함께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올 2005년의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기여했다.

미 육군 당국은 '영속적인 자유'작전과 '이라크의 자유'작전이 개시된 이래로, 적군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련의 예기치 못한 폭발물 공격 및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미 육군 병사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산하의 수송식 호송단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송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왔다.

2005년 훈련 기간 동안, 워싱턴 소재 루이스 육군 주둔지에서 온 제 3 스트라이커 여단 소속, 123보병 알파 중대의 병력은 어떻게 호송단이 그 후미지역을 방어하고 폭발물을 해제하는지를 시연했다.

11월에 이라크로부터 귀환한 후, 이 소대는 미 8군의 사병들과 육군 2군 및 긴급 의료팀과 함께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호송단이 한국 지형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시연하기 위해서 한 팀을 이뤘다.

호송단이 공격을 받을 때, 스트라이커 차량들은 적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방어선을 설정하며, 나머지 호송단과 응급의료팀들이 통과할 때까지 그 지역의 안전



Pfc. Michael Noggle/ Eighth Army PAO

을 확보한다. 만약 적군의 공격이 야근 측 저지력보다 강력할 경우에는 공중 공습 병력과 함께 헬리콥터 정찰대도 요청된다.

일단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면, 의료팀이 도착해서 부상자를 모아 인근 의료시설로 호송한다.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온 라포트 대장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온 한/미 군간

부들은 이 훈련을 참관했고, 모두가 호송단의 잠재력과 호송시의 빠른 대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육군의 새로운 기술과 훈련을 위한 시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이 전시에 공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fc. Michael Noggle/ 8th Army PAO

# 선행에 앞장선 201 통신중대 2사단 항공1 대대 아쉬운 작별인사

2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41통신대대 201통신중대 2소대 소속 카투사 대원들은 자원하여 지역사회 시설을 도움으로써 카투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군인임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부서관협회 용산지부는 좋은이웃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년 7월 이후 영락보린원 지원을 계속 해왔다. 그러던 중 영락보린원장 신동훈씨는 보육원의 각 방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협회측에 의뢰했다. 협회측은 201통신중대



영락보린원 아이들과 함께 통신망의 상태를 시험하는 중대원들.

측에 자문을 구했고 박재원 병장, 김주하 상병, 김덕운 일병, 임문기 일병 그리고 강선두 일병은 의미있는 일에 기꺼이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선뜻 나섰다. 중대원들은 통신망을 설계하고, 전선을 연결하며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등 봉사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미8군 작전참모부 방공포 사단의 토마스 바이스 중사는 201중대원들에 대해 "그들은 맡은 일에 있어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들이 보여준 성실함에 감탄하였다"며 "나는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건물 설계 구조상 몇몇 어려움이 있었지만 카투사들은 모든 일을 잘 해내었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201통신중대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고,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선행을 끝낸 후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바이스 중사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이들이 전적으로 개인시간만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은 가장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모든 카투사들이 더 나은 지역사회와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영락보린원은 9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업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다. ■

상병 김도호

3월 4일 2사단 항공여단 1대대원들은 마지막으로 애민원 방문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어린이들과 만든 추억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에 소재한 제 2공격 헬리콥터 연대 1대대(1-2 항공대대)는 부대 인근 사회단체와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카투사들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9월부터 애민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격주로 방문 봉사 활동을 해 왔었다. 지금은 미군 부대 재배치로 인해 춘천 소재 캠프 페이지는 없어지고 그 곳에 주둔하던 1-2 항공대대는 원주의 캠프 이글로 이동하게 되었다.

애민원에는 10여 명의 교사들과 5세의 어린이부터 10대 후반의 고등학생까지 8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애민원을 방문한 항공 1대대는 영어회화, 그림 그리기, 힙합 수업, 그리고 농구나 축구 등의 야외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하였다. 이렇게 지역사회단체와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에는 비단 카투사뿐만 아니라 미군들도 왕성한 참여를 하였다. 부대 내에는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미군들이 많으며, 의무병의 경우



제공사진

애민원 어린이들과 함께한 대대원들.

에는 직접 장비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치아검사를 해주기도 했다. 애민원의 아이들도 미군을 낯설게 생각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같은 대대 소속 신우진 상병은 "비록 두 시간 정도의 짧은 만남이지만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매번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우리를 반기곤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봉사 활동은 군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보람 중 하나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일병 이정우

## 카투사 한마디

# 독도에 관한 나의 생각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 병장 이민규

현재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더 나아가 미래 우리나라가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 상병 이정훈

독도 문제는 공론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널리 알려 일본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역사를 잊은 채 또 다시 타국의 이익을 빼앗으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일본국민에 의해 자연히 논쟁이 가라 앉으리라 믿는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다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다. "그냥 계속 우리 땅이었잖아" 와 같은 주장은 이미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 상병 천정일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리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일 양국을 바라보는 전세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일본은 벌써 오래 전부터 해외 각국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불고 있는 '독도는 우리땅' 열풍이 부디 한때 들끓었다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닌 일본처럼 지속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인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 상병 조현창

독도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절대 하루 아침에 나타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야 '이게 무슨 소리냐'는 듯한 냄비근성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독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논하기에 앞서 정확한 역사적 사료와 근거들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급선무인 듯하다. 더 이상의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



카투사 신문 최의진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몇 개월간의 지긋지긋한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온 듯 하다. 따뜻한 날씨에 몸이 둔해지며 어느 때보다 업무에 소홀해지기 쉽고 유난히 바깥 생각이 많이 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나라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카투사들을 생각하며 기자는 4월 첫 번째 호 부대탐방 기사를 위해 의정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경유해 2시간 남짓해서 도착한 곳은 의정부 캠프 케이시 속의 캠프 호비로 2사단 1여단 여단지원대대본부중대가 위치한 곳이었다. 캠프 케이시에 도착한 다음 셔틀 버스를 타고 5분정도 안으로 들어가 캠프 호비에 도착하였고 근처 모터풀 정문에서 기사를 반갑게 맞이한 여단지원대대본부중대 소속의 카투사를 따라 들어갔다. 대대 모터풀은 정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 많은 인원들로 인해 분주해 보였다. 활기차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원들 사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기자는 인사과에서 본부중대원들과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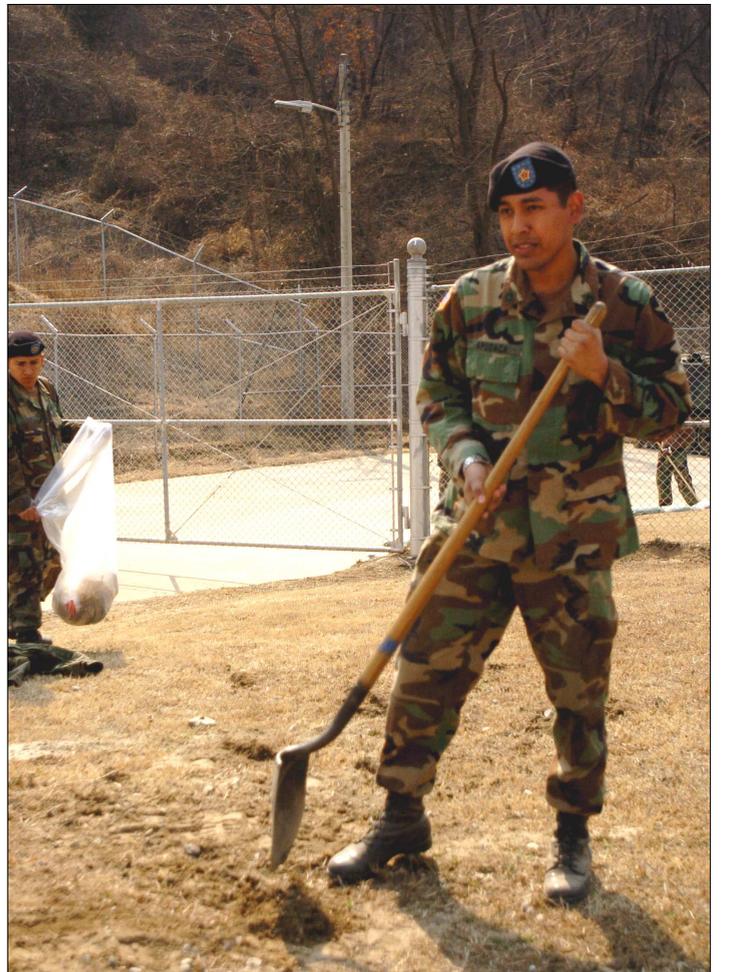
2사단 1여단 여단지원대대본부중대는 작년 2사단에서 여러 부대가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한반도를 빠져나가면서 남은 병력들로 만들어진 신설 대대의 중대이다. 2사단 공병여단 2공병대대와 2사단 2헌병중대의 일부가 합쳐져 올해 신설된 것으로 여단지원대대본부중대에는 의무과, 인사과, 보급과, 작전과가 있는 1소대, 대대작전과, 비밀문서 관리과, 통신과가 있는 2소대, 본부중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비소대인 3소대와 취사과, 탄약관리과, 유류관리과가 있는 지원소대인 4소대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 2공병대대의 공병들과 2헌병여단의 헌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인터뷰는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사단 공병여단 2공병대대에 있을 때와 하는 일이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며 여단지원대대본부중대 유희관 병장은 "대대의 정비병들이 고장난 장갑차, 험비, 트럭 같은 차량들을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하고 반납 받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자신의 업무를 소개하며 "매년 차량들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비를 시켜주고 차량들이 부대 밖으로 임무를 나갈 때에 그 허가를 내어주는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대근처 모터풀 주변에서 분주히 작업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묻자 유희관은 "부대가 이제 막 이전되었기 때문에 최근 작업량이 많은 편"이라고 말하며 현재 대대 모터풀 내외의 정비 및 정리를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중대 이정훈 상병은 "이사를 막 왔을 때는 부대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근처에 쓰레기도 많고 도로위에 흙더미가 무너져 있고 매우 어수선했던 상태였다"고 말하며 "하지만 계속된 작업으로 인해 점차 정리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즘 작업은 매일 있다.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밤도 못 먹고 할 때도 있다"며 유희관은 다른 부대와 비교해서 많은 작업량에 대해 "힘들지만 카투사, 미군 할 것 없이 새로운 부대의 단장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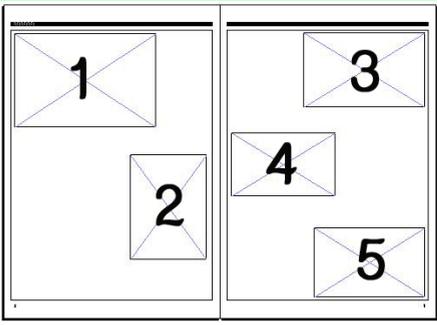
여단지원대대본부중대에서 공병에 이어 그 다음으로 많은 카투사 인원이 배치된 헌병들은 이곳에서 주로 야전헌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여단지

원대대본부중대근무헌병 천정일 상병은 "예전 부대에서는 주업무가 부대내외 순찰이었는데 현재 여단지원대대로 재배치를 받은 뒤에는 훈련을 위주로 해서 야전 헌병으로서의 임무를 수



카투사 신문 최의진

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평상시 업무는 호송차량 호위로 호송차량이 임무수행중 이동할 때 우리 헌병이 앞에서 경호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업무가 생긴 배경에는 예전 여중생장갑차 사고 사건이 있었는데, 여단지원대대의 근무헌병들은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



1. 대대 모터풀에서 험비를 정기점검 하고 있는 본부중대 김태현 병장.
2. 호세 아포다카 일병이 대대 모터풀 주변의 흙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3. 본부중대 조현창 상병이 전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4. LMTV 위에서 공구를 옮기고 있는 유희관 병장의 모습.
5. 고장난 험비를 정비하고 있는 본부중대 로드리고 플라판코 일병.

는 본부중대 로드리고 플라판코 일병.

었다. 천상병은 "당시에도 호송차량이 사고를 낸 것이었는데 시야 확보도 잘 되지 않았고 사고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현장 보존도 잘 안되었다"고 말하며 "호송차량 호위시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안전하게 호송차량을 호위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우리 중대의 헌병들이 주업무로 맡고 있다"고 본부중대의 근무헌병의 업무를 설명했다. 헌병들의 불규칙한 업무시간에 대해 천상병은 "예전에 2헌병대대에서 근무 할 때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12시간이라는 일정 근무시간이 있긴 했었지만 갑자기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일과가 끝나지 않아 피로가 쌓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지만 현재 여단지원대대로 재배치를 받고는 그나마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들 근무헌병들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업무로 인해 카투사들의 큰 기쁨중 하나인 외박의 혜택도 반납한 채 헌신적인 자세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훈련을 나가게 되면 저희 여단지원대대가 속한 2사단 1여단이 모두 나가게 됩니다. 172 전차대대와 9보병 2대대, 472기갑대대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앞의 부대들을 뒤따라가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여단지원대대가 하는 일입니다. 선발 부대들이 지나간 곳에는 저희 본부중대 헌병들이 지속적으로 배치가 되어 확보구역에서의 임무를 펼치게 됩니다." 천상병은 본부중대의 근무헌병들의 훈련시의 모습에 대해 "호송차량을 호위 중 적들이 각 방향에서 공격을 가해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 호송차량이 고장 났을 때



카투사 신문 최의진

굴 볼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한다. 외박을 자주 못나가는 부대 특성상 선후임간의 전우애가 남다르다며 윤병장은 "휴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도 외박을 못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비록 나가지는 못하지만 부대 내에서 바비큐파티 등의 회식자리를 열어 아쉬운 마음을 달래곤 한다"고 덧붙였다. 유난히 상병과 병장이 많은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의 카투사들은 제대 후를 생각하여 요즘에는 특히 같이 모여 공부하는 자리를 자주 갖는다고 말했다. 윤병장은 "같이 모여 영어공부도 하고 복학 후를 생각해 전공 공부도 한다"고 말하며 "혼자 하는 것보다 선후임이 모여 공부를 하니 능률도 좋고 친목도 도모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다른 부대의 카투사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신설된 대대 부대마크 디자인을 맡겼다"고 부대마크를 제작하게 된 경위를 말하며 자랑스러워했다.

인터뷰 와중에도 급한 작업 때문에 작업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대다수였을 정도로 기자가 방문한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부대탐방 과정을 마치고 캠프 케이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도 늦은 오후까지 모터폴 주변에서 흠을 다지고,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 인원들을 볼 수 있었다. 올 초 부대에 막 이사 왔을 때 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고 말하는 본부중대원의 목소리에서는 새로운 곳에서의 군생활에 대한 기대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 고맙게도 기사를 버스 정류장까지 대려다준 여단 지원대대 본부중대원과 인사를 나누며 캠프 케이시를 뒤로 했다.

일병 최의진



카투사 신문 최의진

"주말에도 호송차량 호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외박을 나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 업무가 며칠 전에 정해져서 나오면 대비를 하여 외박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당일에 임무가 생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대명절이 아니면 외박증을 얻기 어렵습니다."

천상병은 또 예전 2헌병대대에 있을 때는 군율을 어기는 병사를 제재하는 헌병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느끼는 보람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인 도로를 이용하는 호송차량 호위 임무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고를 사전에 억제하는 야전헌병의 임무수행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원들은 최근에 있었던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과 더불어 모든 훈련기간 중에 주로 야전지에 나가 생활을 한다고 한다. 본부중대 조현창 상병에 의하면 중대원들은 이 훈련 기간 중 전시 상황과도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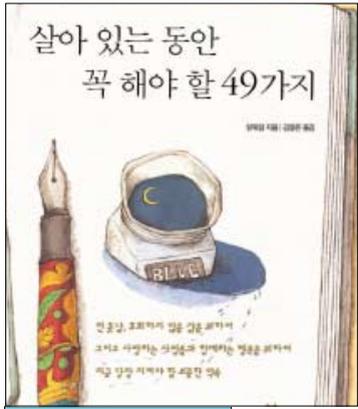
의 대처 방법 등을 연습하게 된다"고 말하며 또 "팀을 나누어 각 팀별로 호송중인 중요 물품 및 물자의 안전 확보 연습, 적들에 대응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야전 훈련장에서 험비 등의 차량 정비와 여러 무기 및 장비 상태를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올 초에 신설된 대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처음 같이 일을 하게 된 미측 중대원들간의 관계가 어색하기도 하다는 본부중대 근무헌병 이동진 병장은 "이곳 여단지원대대에 오기 전 2헌병대대에서 순찰 근무를 할 때는 미군과 언제나 같이 한 팀을 이뤄 근무를 해서 매우 친하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미군들과 근무가 겹치는 일이 거의 없어 그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같은 중대 카투사 선후임들과는 비록 근무시간이 다르고 인원이 많아 서로 일

신설된 대대인 만큼 여단지원대대는 아직 부대마크가 없었는데 이 새 부대마크를 여단지원대대 본부중대 조현창 상병이 디자인하고 있었다. 조상병은 "평소 작전 때나 훈련이 있을 때 지도에 그림 그리는 일을 도맡아 했었다. 장교들이 보기에 잘



카투사 신문 최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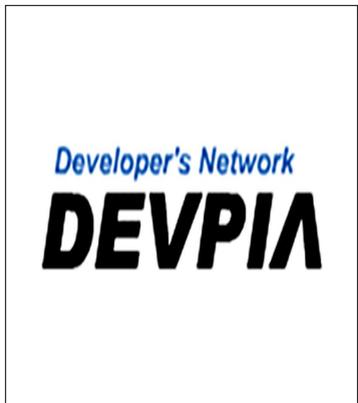


BESTSELLER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탄쥐잉 / 위즈덤하우스

가슴 설레는 사랑, 우정, 향수,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사람의 향기, 모험심 등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줄 49가지 의미 깊은 일들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담아낸 따뜻한 에세이집.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소식 끊긴 친구에게 술 한잔 하자고 먼저 전화 걸 용기와 여유를 갖게 한다. 저자는 이 책 전체를 통해 행복은 가까이 있다고, 지금 당장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외치라고 말한다.



WEBSITE

데브피아

www.devpia.com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강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되는 도서들의 평가를 읽을 수 있고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네티즌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사이트.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Biz - Whiz

제 7장

Even Homer sometimes nods.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호머(Homer) 같은 위대한 현자(賢者)도 자신이 알지 못한 사실에 수긍한다는 의미.

Dialogue

Smith : Sorry sir. It was my fault.  
Boss : Well. Don't worry. Even Homer sometimes nods.

Smith :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스미스 :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사장 : 음 걱정 말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

스미스 :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y Phrases

fault : 실수  
Homer : 고대 그리스의 시인  
nod : 고개 끄덕이다, 어떤 사실(실수)을 시인 하다  
consideration : 고려함, 이해함

Cat got your tongue?

꿀 먹은 병어리냐?

Dialogue

Brian spent all his money on drinking and gambling so Corey his wife, got really mad at him.

Corey : Honey, where is this month's paycheck?  
Brian : Well, uh...

Corey : What's the matter? Cat got your tongue?  
Brian : I am really sorry. Honey, I swear it won't happen again.

남편이 월급을 술과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리자 부인은 몹시 화가 났다.

A : 여보, 이번 달 월급 어디 있어요?  
B : 그제, 글썄, 어...

A : 왜 그래요? 갑자기 꿀 먹은 병어리가 됐어요?  
B :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

Key Phrases

gambling : 도박  
honey : 꿀, 여보  
pay check : 월급, 급여  
tongue : 혀  
swear : 맹세하다

Paint the town red

코가 삐뚤어지게 놀다. 철없는 아이들처럼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인간을 흥분 시킨다는 색깔인) 빨간색페인트로 온통 칠을 하다.

Dialogue

A : How was last night?  
B : I met my old friend and we painted the town red.

A : It seems like you really had a good time.

A : 어젯밤 어땠어?  
B : 옛 친구를 만나서 코가 삐뚤어지게 놀았어.  
A : 재미 좋았던거 같은데.

Key Phrases

old friend : 오랜 친구 (보통 고향친구를 의미함)  
it seems like : ~ 처럼 보인다

Don't cry over spilt milk

이미 었질러진 물이야! 실수로 맛있는 우유를 쏟아 버리고 아까워서 울어도 소용없다.

Dialogue

A : Mike, why are you so upset?  
B : I don't know what to do? I broke the antique vase from Korea.

A : Come on, now. Don't cry over spilt milk.

B : But as you know, that's from my best Korean friend .

A : 마이크 왜 그래? 언짢아보여.  
B : 어쩔 좋지? 한국산 골동품화분을 깨뜨렸어요.

A : 진정해요. 이미 었질러진 물이잖아요.  
B : 하지만 내 가장 친한 한국친구의



선물인데.

Key Phrases

cry over : ~ 때문에 울다  
spilt : 쏟아진 ( spill의 과거 분사형)  
upset : 속이 무척 상한  
antique : 골동품, 값진 물건  
vase : 꽃병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둘이 함께 머리를 쓰는 것이 혼자 보다 좋다.

Dialogue

Kim : Hey, John would you come over here for a minute?

John : What's happening?

Kim : I've got a problem with this equation and I need your help.

John : You bet. You know that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김 : 존, 이리로 좀 와 주실래요?

존 : 무슨 일 있어요?

김 : 이 방정식 문제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존 : 물론이죠. 백지장도 둘이 맞들면 낫잖아요.

Key Phrases

would you ~ ? : (정중하게) ~ 좀 부탁드립니다.

equation : 방정식 (수학)

bet : 내기하다 ( You bet. 내기해도 좋아. = 물론이지)

\* 영어이름중 Kim은 Kimberly의 준말로써 흔한 여자이름임

■ 카투사 기고문

# G 메일 그리고 구글

-2. 구글의 다른 서비스, 비약적 성장

전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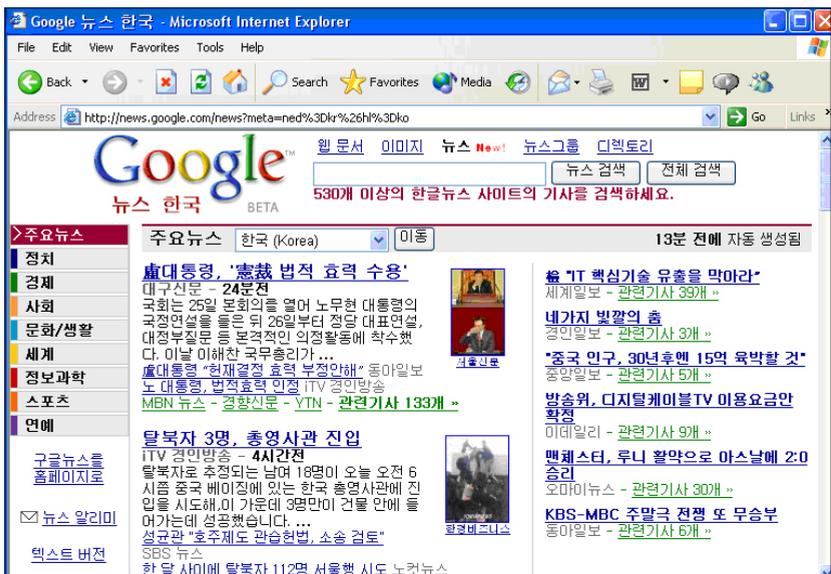
## 구글의 다른 서비스

G 메일 서비스 이외에도 구글은 한글 뉴스 서비스(news.google.co.kr)를 새로이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데스크탑 검색 툴(desktop.google.com)을 내놓기도 했다. 한글 뉴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이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사실 이러한 포털 사이트 페이지 뷰의 15% 정도

이러한 구글의 다양한 행보가 다른 기업들에게 더욱 위협적인 이유는 구글이 얼마 전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주식을 상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9월에 구글은 주식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주당 80여 달러 정도에 내어 놓아 17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닷컴 기업이 되었다. 이는 시가총액 370억 달러 정도인 야후와 비교해 보면 적진 하지만 인터넷

러나 뒤늦게 웹브라우저의 중요성을 인식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밀려 결국 웹브라우저 시장을 잃고 AOL에 인수되었으며, 현재는 파이어폭스와 같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그룹으로 취급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구글 역시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엔진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을 야후와 함께 양분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기술과 특징으로 사용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 공개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검색 엔진 시장까지 차지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세가 시작될 듯하다. 현재 인터넷검색 엔진에 대한 기술이 전무한 (야후의 기술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상태이지만 이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기술력을 이용한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방법으로, 넷스케이프사를 공격하던 것과 같이 구글을 공격할 것이다. 이미 알타비스타와 구글을 인수하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구글은 몇 년 후에도 결국 살아남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한다'는 그들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역시 다른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3류 기업으로 몰락



구글의 한글 뉴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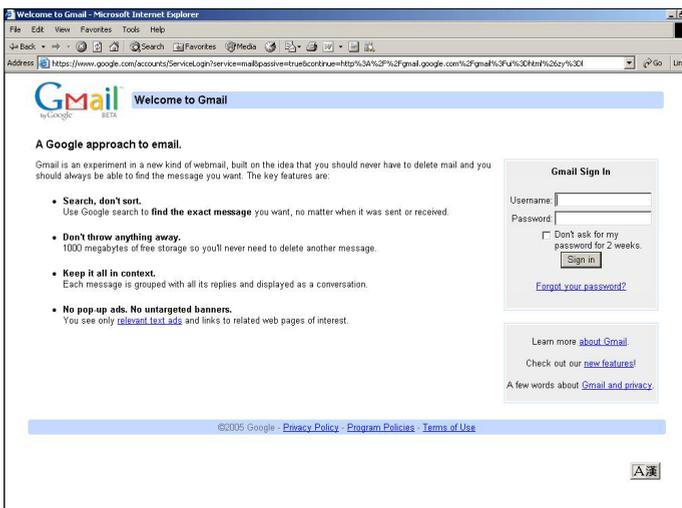
에 해당하는 부분이 뉴스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상황이라 구글의 한글 뉴스 서비스 개시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뉴스 서비스 역시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검색 엔진이 다양한 기준에서 여러 뉴스 소스를 분석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의 링크들을 자동적으로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구글 특유의 방식이 느껴진다. (사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구글의 뉴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조잡함이 느껴지는 것도 같다.) 데스크탑 검색 툴의 경우에는 사용자 PC 내의 워드, 엑셀, 파워 포인트뿐만 아니라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사용해 저장된 E 메일과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임시로 저장해 놓은 캐시 파일까지 본문검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데스크탑 검색 툴 역시 웹 검색 결과와 데스크탑의 검색 결과를 같이 보여 주고, 또 이러한 것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으로써가 아니라 웹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것이라 기존의 윈도우 데스크탑 환경에 있던 사용자들을 네트워크 속으로 끌어 오려는 구글의 시도가 보여진다.

## 구글, 자금까지 거머쥘다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의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록 처음 기업 공개를 발표할 당시, 주당 105-135달러 정도에 2460만 주를 공모해 30억 달러 정도를 벌고 시가총액 360억 달러의, 야후와 맞먹는 기업이 되려 했던 계획에 비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구글의 검색 기술과 맞물려 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MS에 대항 할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전, 웹브라우저 시장의 99%를 장악했던 넷스케이프사의 넷스케이프를 기억하는가. 넷스케이프사는 그 엄청난 인기와 기술에 힘입어 많은 사용자들의 지지를 얻고, 닷컴 기업 열풍을 일으키며 기업 공개를 통해(역시 구글처럼) 많은 돈을 벌고 승승장구해 나갔었다. 그



G메일의 로그인 화면.

해버릴 것인가.

6병기대대 본부중대 상병 오인호



## 미트 페어런츠 2

감독: 제이 로치

주연:로버트 드 니로, 벤 스틸러

4년 전,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며 가까스로 인정받은 그렉. 이제 남은 건, 행복한 '웨딩' 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양가의 첫 번째 만남. 하지만 그렉은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 잭과는 너무 다른 자신의 '부모'가 최대의 복병이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 과연 '그렉'은 괴롭고도 험난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 겁쟁이

Buzz

2. Mr. Flower/ 조성모
3. Superstar/ 주얼리
4. 가면 / 강타
5. 안부 / 별
6. 빙고 / 거북이
7. 그대는 모르죠 / Fly to the Sky
8. 울빠미 / 은지원
9. 약속 / god
10.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 테이
11. 참 다행이야 / SPAPA
12. 사랑인걸 / 모세
13. 어머니 / 장운정



아침 햇살에 담긴 왠지 모를 즐거움을 느끼며 기자는 최근 인기 절정의 연기자 류현영씨를 인터뷰하기 위한 취재길에 올랐다. 한 발짝 늦게 찾아온 봄이었기에 그 기운은 더욱 강렬했고 기자는 그런 봄의 느낌을 만끽하며 동인천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교내에는 드라마 촬영준비가 한창이었다. 촬영장 부근의 주차장에서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류현영씨와 그녀의 매니저가 기자를 맞이 해주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줄곧 자신의 최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녀의 프로다운 모습에서 그녀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소개 및 최근근황**

안녕하세요. 현영입니다. 비록 직접 뵙진 못하지만 카투사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오락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화 '오로라 공주'의 촬영을 거의 마무리 지었고, 드라마 '건빵선생과 별사탕'을 새로 촬영중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

저는 성격이 활발한 편입니다. 여자연예

인들은 대개 새침한데, 제 성격은 새침한 듯하면서도 활발하고 솔직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목소리에 관하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남성분들께서는 비음 섞인 제 목소리를 듣고서 "저 애가 날 좋아하는 거 아냐" 하고 오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말한것 뿐인데, 남성분들께서는 제가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다고들 하세요. 모자를 눌러쓰고 집 주변에 잠깐 나갈 때에도 목소리 때문에 주위 분들께서 제가 현영인지 바로 알아보셔서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건빵선생과 별사탕'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어려운 점**

저는 이 드라마에서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체육선생님으로서 공효진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저는 공효진씨를 시키하고 질투하면서 괴롭히는 동료교사로 그려집니다. 제가 악역을 맡고 있지만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좋은 연기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연습을 열심히 하니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시기도 하고요.

**남자친구가 군인이라면 해주고 싶은 것**

남자친구에게 이런 저런 선물들을 많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면회를 정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군생활이지만 바깥세상과 떨어져 있어야 하기에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자친구가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카투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카투사'하면 제일 먼저 "모두들 영어를 참 잘하신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또 전부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미군들과 함께 군복무 하면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현명하게 처리하시잖아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남은 군대생활 보람차게 열심히 하세요. 또 아프지 마시고요. 저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여러분의 수고 덕택이고 이 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맡은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채 모습도 지켜봐주세요.

일병 이정우